

비혼자녀와 부모의 접촉 : 자녀의 성별에 따른 차이

Contact between Never Married Children and Their Parents : Moderating Effects of Children's Gender

최희정(Choi Heejeong)^{1*}

¹Department of Consumer and Family Sciences, Sungkyunkwan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frequency of contact between parents and their non-coresident, never-married daughters and sons compared to children in other marital statuses. Despite an increasing number of never married adults, little is known about the extent to which they may be willing to remain connected to and exchange support with their parents. The data were drawn from first wave of the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KLoSA, 2006). For analyses, respondents who had at least one non-coresident child aged 40 or older were selected, resulting in the analytic sample of 2,755 parents with 7,741 children. Both sibling fixed effects regression models and regression models with robust standard errors were estimated using the xtreg and reg procedures in STATA. Findings revealed significant marital status by gender interaction effects on face-to-face contact. Never-married daughters were more likely to see their parents compared to their married, divorced, or widowed counterparts. Never-married sons, on the other hand, reported slightly lower levels of in-person contact with their parents in comparison to married sons and lower levels of contact compared to divorced or widowed sons. More frequent contact via phone, mail, or email was reported in daughter-parent relationship compared to son-parent relationship, but no significant marital status by gender interactions were observed.

▲주제어(Key words) : 비혼자녀(never married children), 세대 간 접촉(intergenerational contact), 대면접촉(face-to-face contact), 한국고령화패널(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I. 서론

세대 간 접촉(intergenerational contact)은 두 세대가 서로 만나 얼굴을 보거나 통신수단(전화, 편지, 이메일 등)을 통해 연락을 교환하는 행위로 독립적인 주거를 유지하는 성인자녀와 부모의 결속을 유지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요건이라 할 수 있다. 세대 간 결속(intergenerational solidarity)에 대한 연구는 세대관계를 크게 구조(structure, 세

대 간 지리적 근접성), 교류(association, 세대 간 접촉), 정서적 유대(affect), 가치관의 유사성(consensus), 기능(function, 세대 간 지지의 교환), 규범과 기대(norms and expectations, 세대 간 의무와 책임감)의 여섯 가지 차원에서 접근하는데(M. Silverstein, & V. L. Bengtson, 1997), 각 차원은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예를 들어 성인자녀와 부모는 만나고 서로에게 연락을 취하여 정서적 유대감을 강화하고 정서적, 도구적 지지를 교환한다(L.

* Corresponding Author : Choi Heejeong, Department of Consumer and Family Sciences, Sungkyunkwan University, Sungkyunkwan-ro 25-2, Jongno-gu Seoul 03063, Korea, tel: +82-2-760-0559, E-mail: elphie@skku.edu

Lawton, M. Silverstein, & V. L. Bengtson, 1994; M. Silverstein, T. M. Parrott, & V. L. Bengtson, 1995). 또 접촉은 부모와 자녀가 가족 내에서 자신의 역할에 부여하는 중요성이나 가족에 대한 의무감의 표현이기도 하다(M. Kalmijn, & J. De Vries, 2009). 이는 효규범이 강한 한국가족에서 특히 그러할 것인데 장남과 노부모의 접촉이 가장 빈번하다는 통계치는¹⁾ 부계직계의 가족규범이 접촉이라는 행위를 통해 드러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접촉은 유사시 지지의 가용성(availability)과 깊은 관련이 있어 세대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중요시된다(E. Grundy, & S. Read, 2012; M. Silverstein, & V. L. Bengtson, 1997).

세대 간 결속에 대한 연구는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가족이 전통적으로 담당해 온 돌봄과 부양의 기능에 어떠한 변화가 초래될 것인가에 관심을 둔다(M. W. Riley, 1983; M. Silverstein, & V. L. Bengtson, 1997). 예를 들어 해외에서는 이혼이나 재혼을 경험한 성인자녀와 그 부모 사이에 일어나는 접촉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M. Kalmijn, 2014; G. Spitze, J. R. Logan, G. Deane, & S. Zerger, 1994). 이와 비교하여 국내의 선행연구는 아직까지도 주로 기혼자녀와 그 부모를 연구대상으로 한다는 특징이 있다(J. H. Choi, 1994; S. K. Kang, H. J. Choi, & M. R. Chung, 2016; J.-Y. Lee, & H.-J. Chung, 2003). 그런데 개인의 선택, 책임, 자율성, 자아성취가 중요시되면서(S. Y. Lee, 2013) 자녀세대에서 만혼과 비혼²⁾의 경향이 확연히 증가하고 있다. S. Y. Lee(2012)가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치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남성의 경우 1995년을 기점으로 15년 사이에(1995-2010) 40세에서 44세 비혼율이 2.6%에서 14.8%, 45세에서 49세 사이는 1.2%에서 8.2%로 증가하였다. 동기간 동연령대에서 비혼여성의 통계치는 각각 1.8%에서 5.9%, 1.1%에서 3.3%로 상승하였다³⁾. 해외 선진국에서도 비혼의 비율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하면⁴⁾ 우리나라에서도 유사한 변화를 예측할 수 있으며⁵⁾(E. Jee, 2014) 따라서 비혼자녀와 부모의 결속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비혼자에 대해 현재까지 이루어진 국내연구는 비혼의 동기, 독신으로서의 자유로움과 외로움, 일을 통한 자아정

체감의 형성 및 경제력 확보의 중요성, 노후에 대한 불안감 등을 주요 테마로 다루고 있으며(J. H. Chae, 2015; J. H. Kang, & Y. W. Seol, 2012; M. H. Kwon, B. H. Kim, & Y. J. Kim, 2009; K. Shim, 2002; M. Sung, 2014; E. J. Yang, 2005), 이들 대다수가 고학력 비혼여성을 대상으로 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는 자신을 경제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고학력의 여성이 가부장제에 반발한 결과 비혼을 '선택'한다는 시각과 맞물려 있다(S. Y. Lee, 2013). 비혼자(비혼여성)의 가족과 관련된 연구가 다소 관념적으로 성역할 의식, 결혼관, 가족주의 등과 같은 태도에 주로 초점을 두는 이유도 이들이 가족으로부터 자유로운 존재라는 이미지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그런데, 비혼자가 실제 가족관계에서 보이는 행동을 탐색한 소수의 질적연구에서는 이들이 부모 및 형제자매와 빈번한 접촉을 하며 정서적, 도구적 지지를 활발히 교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H.-K. Kim, 2013; H. Y. Kim, 2007; J. H. Lee, & H. J. Kim, 2015; M. Sung, 2014).

한편, 우리나라보다 앞서 인구의 고령화와 비혼의 증가가 맞물려 진행된 일본에서는 비혼자녀가 부모의 부양을 전담하게 되는 현상에 주의를 기울여왔으며, 특히 부양자로서 비혼의 아들이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이 탐색되었다(E. Jee, 2014). 그러나 국·내외의 구분이 없이 비혼여성과 비혼남성이 부모와의 결속에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에 초점을 둔 연구는 드물다. 국외연구에서는 주로 자녀의 배우자 유무를 통제한 상태에서 아들보다는 딸이 부모와 근접하여 살면서 빈번한 접촉을 하며 정서적, 도구적 지지를 제공하는 경향을 발견하였다(E. Grundy, & N. Shelton, 2001; M. Silverstein, D. Gans, & F. M. Yang, 2006; M. E. Szinovacz, & A. Davey, 2001). 한편, 부모에게 제공하는 도구적 지지의 관련변인을 탐색한 연구에 따르면 아들은 부모와의 접촉빈도와 부모에 대한 의무감이 높을수록, 딸은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가 깊을수록 부모에게 제공하는 도구적 지지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L. Lawton et al., 1994; M. Silverstein et al., 1995). 비혼의 딸과 아들이 부모와 접촉하는 빈도에 초점을 둔 본 연구는 한국가족의 맥락에서 비혼자녀가 부모의 돌봄과 부양에서 어떠한 역할을 담당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하였다.

1) 2014년 노인실태조사에서 65세 이상 노인 32.5%가 비동거 자녀 중 장남과 가장 자주 접촉한다고 보고하였다.
 2) 본 연구에서 비혼이라는 용어는 혼인을 '원래 해야 하는 것'이라고 전제하지 않고 단순히 한 번도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임을 의미한다.
 3) 1970년 남성 0.2%, 여성 0.1%에 불과했던 우리나라의 생애비혼율은 2010년 현재 남성 5.8%, 여성 2.8%이다(S. H. Cho, 2014).
 4) 예를 들어 일본은 2010년 현재 생애비혼율이 남성 20.1%, 여성 10.6%이다(S. H. Cho, 2014).
 5) Statistics Korea(2010)의 장래가구추계에 따르면 2035년 40세 이상 비혼자는 남성 약 12% 여성 약 15%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현재까지 비혼자녀와 부모 사이의 결속에 대해 이루어진 선행연구에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 첫째, 기혼 자녀에 대해 이루어진 연구와 비교하여 비혼자녀에 대한 연구는 그 수가 크게 부족하며, 기존의 국내연구는 절대 다수가 질적연구이거나(J. H. Kang, & Y. W. Seol, 2012; H.-K. Kim, 2013; M. Sung, 2013), 양적연구의 경우 빈도분석이나 교차분석을 제시하는 탐색적인 연구에 그치고 있어(H. Y. Kim, B. Y. Sun, M. J. Chin, & E. H. Shagong, 2007) 다변량분석에 기초한 양적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비혼자녀와 부모의 결속을 언급한 연구의 대상이 여성 특히 고학력 전문직 여성으로 그 연구대상이 국한되어 있다(M.-W. Noh, & I. Lee, 2011; M. Sung, 2014; E. J. Yang, 2005). 연령층 역시 결혼의 가능성이 높은 20대와 30대를 포함하여(J. H. Kang, & Y. W. Seol, 2012; H. Y. Kim et al., 2007; J.-H. Lee, & Y.-S. Choi, 2007) 생애비혼자가 될 확률이 높은 40대 이후에 초점을 둔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 셋째, 비혼자녀와 부모 사이의 결속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부모 아래 다양한 혼인지위를 가진 아들과 딸이 비교되는 가족 내 분석(within-family analysis)을 실시하는 것이 이상적이나(M. W. Riley, 1983; R. Ward, G. Deane, & G. Spitze, 2014) 그러한 연구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제한점을 보완하여 본 연구는 부모 2,755명이 자신과 동거하지 않는 40세 이상의 자녀 7,741명에 대해 제공한 자료를 활용하여, 자녀의 혼인지위(비혼, 기혼, 이혼 혹은 사별)와 성별(딸, 아들)이 독립적으로 혹은 상호작용하여 부모와 만나거나 연락하는 빈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았다. 성인자녀와 부모의 관계 수명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V. L. Bengtson, 2001) 서로 독립적인 주거를 유지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으며(S. S. Lee, H. J. Choi, & H. S. Yoon, 2015) 이와 함께 비혼자녀가 증가하는 있다(S. Y. Lee, 2012). 따라서 비혼자녀와 부모 사이의 접촉의 빈도와 그 관련변인을 살피는 작업은 한국가족의 세대 간 결속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비혼자녀와 비혼이 아닌 자녀는 부모와의 접촉빈도(만남과 연락)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1-1: 비혼자녀와 기혼자녀는 부모와의 접촉빈도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1-2: 비혼자녀와 이혼이나 사별을 한 자녀는 부모와의 접촉빈도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비혼자녀와 비혼이 아닌 자녀의 부모와의 접촉빈도(만남과 연락)는 자녀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1: 비혼자녀와 기혼자녀의 부모와의 접촉빈도는 자녀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2: 비혼자녀와 이혼이나 사별을 한 자녀의 부모와의 접촉빈도는 자녀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II. 선행연구고찰

1. 비혼자녀와 부모의 접촉

비혼자녀는 시간이 지날수록 사회적 관계가 축소되기 쉬운 부모에게 심리적 안정감, 정서적 지지, 도구적 지지를 제공할 수 있어 부모에게 중요한 사회적 자원이며, 부모 역시 배우자가 없는 비혼자녀에게 유사한 역할을 할 수 있다(P. Keith, 2003). 실제 비혼자녀가 기혼, 이혼, 사별한 자녀와 비교하여 부모와 가장 빈번한 접촉과 활발한 지지교환을 한다는 국외 선행연구의 결과가 존재한다(N. Sarkisian, & N. Gerstel, 2008; M. Kalmijn, 2014; J. Treas, & Z. Gubernskaya, 2012)⁷⁾. 그러나 비혼자녀를 이혼이나 사별한 자녀와 구분하지 않는 연구가 상당수 있으며(M. Kalmijn, & J. De Vries, 2009), 이는 배우자가 없다는 측면에서 한 번도 결혼을 하지 않은 집단(비혼)이나 이전에 결혼을 한 집단(이혼, 사별)의 조건이 동일하여 따라서 이 두 집단 간 세대 간 결속에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가정을 반영한다. 국내에서 비혼자녀와 부모의 접촉빈도를 대표성 있는 자료를 활용하여 탐색한 연구는 H. Y. Kim, B. Y. Sun, M. J. Chin, and E. H. Shagong(2007)의 실태조사가 유일한 듯한데, 여기에 제시된 기술통계에

6) 다른 가족에 속한 가족원간의 비교가 아니라 한 가족 내 가족원들을 대상으로 분석을 하는 경우를 가족 내 분석(within-family analysis)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절대다수의 선행연구가 실시한 가족 간 분석(between-family analysis)의 경우 A 가족(부모)의 비혼자녀와 B 가족(부모)의 기혼자녀를 비교한다면, 가족 내 분석(within-family analysis)의 경우 A 가족 내 비혼자녀와 기혼자녀를 비교한다.

7) L. Lawton et al. (1994)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구분한 결과 비혼자녀가 기혼자녀보다 어머니와의 접촉빈도가 낮은 것으로, 아버지와의 접촉빈도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L. Lawton et al., 1994).

따르면 비혼 1인가구의 남녀는 부모와 '일주일에 한두 번 이상 연락한다'는 응답이 약 65%, '일주일에 한두 번 이상 만나 뵈고 있다'는 응답이 약 26%로 접촉의 빈도가 기혼남녀⁸⁾보다 훨씬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실태 조사는 그 특성상 접촉빈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인구학적 변수가 통제되지 않은 빈도분석이나 교차분석의 결과를 제시하여, 실태조사를 근거로 하여 세대 간 접촉 빈도에서 자녀의 혼인지위의 역할을 분명히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기혼자녀와 비교하여 비혼자녀와 부모의 접촉빈도가 높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결혼이 세대 간 교류적, 기능적 결속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있다(N. Sarkisian & N. Gerstel, 2008). 배우자라는 존재는 부모와의 상호작용에 필요한 시간과 에너지를 앗아가며, 특히 부부관계는 정서적인 몰입을 요구하여 그 결과 부모와의 접촉과 지지교환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는 관점이다⁹⁾. 결혼은 심리적·사회적 독립과 연결되어 이러한 문화적 규범 때문에 부모와의 접촉이 감소한다고 보기도 한다. 실제 결혼을 하기 전과 후로 나누어 결혼으로의 전이가 세대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선행연구는 결혼을 하게 되면 세대 간 접촉이 유의하게 줄어든다고 보고한다(F. Bucx, F. Van Wel, T. Knijn, & L. Hagendoorn, 2008; R. Ward et al., 2014).

한편, 한번도 결혼을 하지 않은 자녀와 비교하여 이혼이나 사별을 한 자녀와 부모의 접촉은 그 패턴이 다를 가능성이 있다. 과거에 배우자가 있었던 자녀는 현재 배우자가 없다는 점에서 비혼자녀와 유사하여 부모와의 접촉이 기혼자녀보다 활발할 것으로 가정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혼이나 사별한 자녀는 배우자 상실이라는 경험으로 비혼의 자녀와는 질적으로 다른 종류의 만성적인 스트레스(소득의 감소, 자녀양육문제, 상실감 등)에 노출되어 있을 확률이 높으며, 이러한 스트레스는 부모와의 관계에 전이되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M. Kalmijn, 2014). 예를 들어 유럽의 11개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11개국 중 9개국에서 비혼의 자녀와 비교하여 이혼한 자녀와 부모의 접촉의 빈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M. Kalmijn, 2014).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비혼자녀가 기혼, 이혼, 사별한 자녀와 비교하여 부모와의 접촉빈도가 가장 높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앞서 언급한 H. Y. Kim et al.(2007)의 실태조사 외 국내에서 비혼자녀(대부분이 비혼여성)와 부모의 관계를 탐색한 소수의 질적연구의 결과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선행연구는 무엇보다도 비혼여성이 부모 및 형제자매와 빈번한 교류 및 지지를 교환하는 관계에 있음을 강조하였다(J. H. Kang, & Y. W. Seol, 2012; H. Y. Kim, 2007; M. Sung, 2014). 둘째, 비혼여성은 부모와 형제자매 뿐 아니라 기혼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그 자녀(조카)까지 가족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등 가족의 범위를 기혼자녀보다 더 폭넓게 인식하고 있다는 특징이 나타났다(M. Sung, 2014). 셋째, 비혼여성은 본인이 부모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동시에 기혼 형제자매들로부터도 부모의 보호자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부모로부터도 미래의 부양자로 선호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J. H. Lee, & H. J. Kim, 2015; M. Sung, 2013; M. Sung, 2014).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위의 결과는 소수의 질적연구로부터 도출되었으며, 실태조사는 접촉의 실태와 그 관련변인을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의 수준에서 제시하고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2. 비혼자녀와 부모의 접촉에서 자녀의 성별에 따른 차이

앞서 비혼이라는 성인자녀의 혼인지위가 세대 간 접촉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런데 비혼이라는 자녀의 혼인지위는 성별과 상호작용하여 세대 간 결속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크다. 이와 관련된 국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대체로 비혼의 아들이 기혼이나 이혼한 아들보다 부모와의 접촉빈도가 빈번하다는 결과가 보인다(M. Kalmijn, 2014; N. Sarkisian & N. Gerstel, 2008; G. Spitze et al., 1994). 예를 들어, 만남과 연락을 구분하지 않은 연구에서(M. Kalmijn, 2014) 비혼의 아들이 기혼이나 이혼한 아들보다 부모와의 접촉이 잦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비혼의 딸은 기혼의 딸과 접촉빈도에서 차이가 나지 않았다. 이혼한 딸은 자녀의 유무에 영향을 받아 자녀가 있는 비혼의 딸은 기혼의 딸과 차이가 없었으나, 무자녀인 경우 오히려 비혼의 딸과 부모와의 접촉빈도가 낮았다. 만남과 연락을 구분한 연구에서도 비혼의 아들은 기혼의 아들과 비교하여 만남과 연

8) 기혼 남성이 자신의 부모와 일주일에 한두 번 이상 전화연락을 한다는 응답율은 42.9%, 기혼여성은 53.1%로 나타난 바 있다. 부모와의 직접적인 만남은 기혼남성의 경우, 한 달에 한두 번 이상이 56.6%, 기혼여성은 55.0%으로 나타났다(H. K. Jang et al., 2003).

9) 이러한 측면에서 결혼을 'greedy institution'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L. Coser, & R. Coser, 1974, as cited in N. Sarkisian, & N. Gerstel, 2008).

락의 빈도가 모두 높거나(N. Sarkisian & N. Gerstel, 2008)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면(G. Spitze et al., 1994), 비혼의 딸은 기혼의 딸과 비교하여 만남의 빈도는 높으나 연락의 빈도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거나(N. Sarkisian & N. Gerstel, 2008), 만남의 빈도에서는 차이가 나지 않으나 연락의 빈도가 기혼의 자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G. Spitze et al., 1994). 그러나 비혼이라는 자녀의 혼인지위를 다른 혼인지위와 구분하여 살핀 연구는 그 수가 적으며, 혼인지위를 구분한 연구조차도 혼인지위와 성별의 상호작용을 통계적으로 테스트하지 않았다는 한계점이 있다.

비혼자는 성별에 따라 사회경제적 지위에 현격한 차이가 있어(C. Lee, 2012) 비혼자와 부모의 관계에서 성별의 차이를 탐색하는 연구는 사회경제적 지위의 영향력을 감안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연령이 35세 이상인 남성의 경우 사회경제적 지위와 비혼의 확률이 반비례하나 여성은 그 반대로 정비례한다. 40세에서 44세 사이의 비혼남성 약 5명 중 1명이 고등학교 졸업의 학력을 가졌다면 여성은 3명 중 1명이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¹⁰⁾(C. Lee, 2012). 국내의 질적연구는 비혼의 딸과 부모가 정서적 친밀감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비혼의 아들과 부모는 정서적 친밀감이 상대적으로 결여되어 있으며 부모로부터 도구적 지지를 수혜받는 쪽임을 지적하는데(H.-K. Kim, 2013), 이러한 특성은 사회경제적 자원의 차이가 그 원인일 수 있다. 즉 비혼의 아들은 비혼이기 때문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도구적 지지를 받을 수 있어, 비혼의 아들과 딸을 비교분석하는 연구는 다변량분석을 통해 이들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반드시 통제해야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06년 당시 제주도를 제외한 지역에 거주하는 1962년 이전에 출생한 45세 이상의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고령화연구패널(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KLoSA)의 1차 조사 자료(N = 10,254)를 사용하였다. KLoSA의 표집틀은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구이며 모집단을 지역과 주거형태별(일반주택과 아파

트)로 층화하여 표본조사구와 표본가구를 추출하였다. 1차 자료는 2006년 8월부터 12월까지 6개월에 걸쳐 대인면접(CAPI) 방식으로 수집되었다. 그 후 격년으로 조사가 반복되어 현재 2012년도 자료까지 일반에 공개되었다. 고령화연구패널 응답자는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10명까지의 자녀 각각에 대해 연령, 성별, 결혼상태 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부모와의 접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연구의 목적에 적합한 자료이다. 본 연구는 부모 2,755명이 동거하지 않는 자녀에 대해 제공한 자료 중 40세 이상의 자녀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였으며(N = 7,741), 비혼자녀는 결혼 경험이 없는,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¹¹⁾ 40세 이상의 자녀를 의미한다.

2. 주요변수 및 측정

1) 종속변수: 세대 간 접촉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부모와 성인자녀 간 접촉(만남 및 연락)이다. 부모는 최대 10명까지의 자녀에 대해 개개 자녀와 얼마나 자주 만나는지 그리고 전화, 편지, 전자메일 등을 이용하여 얼마나 자주 연락하는지를 보고하였다. 두 변수의 응답범주는 '거의 매일'(=1)에서 '연락하며 지내지 않음'(=10)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분포의 특성을 고려하여 '1주일에 4회 이상'(=4), '1주일에 한 번에서 두세 번 정도'(=3), '한 달에 한 번에서 두세 번 정도'(=2), '일 년에 한 번에서 대여섯 번 정도'(=1), '일 년에 한 번도 보기 힘들거나 연락하며 지내지 않는 경우'(=0)로 응답범주를 재구성하였다.

2) 주요 독립변수: 자녀의 결혼지와 성별

자녀의 결혼지위는 '비혼', '결혼', '별거·이혼·사별'(이하 이혼·사별로 표기)의 세 집단으로 분류하였으며 일부 분석에서는(연구문제 1-1, 2-1) 결혼(기혼자녀)을 준거집단으로 삼았고, 나머지 분석에서는(연구문제 1-2, 2-2) 이혼·사별(이전에 결혼을 했던 자녀)을 준거집단으로 삼아 비혼자녀와 비교 하였다. 자녀의 성별은 딸은 '1', 아들은 '0'으로 코딩하여 아들을 준거집단으로 삼았다.

3) 통제변수: 기혼자녀와 부모의 특성

자녀의 특성. 자녀의 특성으로는 연령(년수), 교육수준(1=무학에서 초등학교 졸업 및 중학교 중퇴, 2=중학교 졸업 및 고등학교 중퇴, 3=고등학교 졸업 및 대학교 중퇴,

10) 2009년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 조사에 따르면 40-44세 사이 비혼남성의 17.6%가 고등학교 졸업, 동연령대의 여성 35%는 석사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11) 고령화연구패널에는 부모와 동거하는 자녀와 부모의 접촉빈도에 대한 정보가 부재하다.

4=전문대 및 4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 자가소유여부(1=자가 거주, 0=전세나 월세에 거주), 근로여부(1=돈벌이가 되는 일을 함, 0=일하지 않음), 자녀의 수(부모의 입장에서 손자녀의 수), 거주근접성을 고려하였다. 거주근접성은 동거하지 않는 자녀를 대상으로 하여 두 세대 간 거주 거리를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경우 '30분 이내'(=1), '1시간 이내'(=2), '2시간 이내'(=3), '2시간 이상'(=4)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즉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와 자녀가 멀리 떨어져 살고 있음을 의미한다.

부모의 특성. 부모의 특성으로는 연령(년수), 성별(1=어머니, 0=아버지), 배우자유무(1=별거, 이혼, 사별, 비혼, 0=기혼), 교육수준(1=무학에서 초등학교 졸업 및 중학교 중퇴, 2=중학교 졸업 및 고등학교 중퇴, 3=고등학교 졸업 및 대학교 중퇴, 4=전문대 및 4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 가구 총수입(만원/1년), 자가소유여부(1=자가 거주, 0=전세나 월세에 거주), 근로여부(1=직장을 포함해서 자기사업, 가족이나 친척 일을 도와주는 것 등의 일을 함, 0=일하지 않음), 건강상태, 거주지역(대도시, 중소도시, 시골; 시골이 준거집단)을 분석에서 고려하였다. 가구 총수입은 함께 사는 가구원의 작년 가구 총소득으로 측정되었으며 분포가 편포임을 고려하여 4분편차(25%, 50%, 75%, 100%)를 기준으로 재코딩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건강과 관련된 변수를 보다 자세히 설명하면 건강은 우울감, 신체기능장애, 인지기능으로 측정되었다. 우울감은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CES-D; L. S. Radloff, 1977) 척도의 한국어 버전이 사용되었다. 한국어 척도는 1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응답자들은 지난 일주일간 외로움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나 수면장애와 같은 신체적 증상을 경험하였는지를 보고하였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신체기능장애는 10문항으로 구성된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Korean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K-IADL)과 7문항으로 구성된 일상생활수행능력(Korean Activities of Daily Living, K-ADL) 척도를 합한 총 17문항으로 측정되었다(C. W. Won et al., 2002). 예를 들어 부모는 옷 갈아입기, 목욕 또는 샤워하기, 화장실 이용하기, 약 챙겨먹기, 전화 걸고받기 등 일상생활을 수행하는데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없는지, 부분적으로 필요한지, 전적으로 필요한지에 대해 응답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을 '다른 사람의 도움이 부분적으로 혹은 전적으로 필요한 경우'(=1)와 '도움이 필요 없는 경우'(=0)로 재코딩한 후 합산하여 총점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즉 점수가 높을수록 신체기능장애 정도가 심함을 의미한다. 인지

기능 척도로는 Mini-Mental State Examination (MMSE; M. F. Folstein, S. E. Folstein, & P. R. McHugh, 1975)의 한국어 버전(K-MMSE)이 사용되었다. MMSE는 전반적인 인지기능을 측정하는 도구로 지남력, 단·장기 기억, 수리력, 물건인지력, 언어력, 명령수행력, 언어실천력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T. N. Tombaugh, & N. J. McIntyre, 1992).

3. 분석방법

본 연구는 Stata를 사용하여 고정효과 회귀분석(Fixed Effects Regression Models, Models 1-4 in Tables 3 and 4)과 회귀분석(Regression with Robust Standard Errors, Models 5 in Tables 3 and 4)을 실시하여 비혼 자녀와 부모의 접촉빈도를 기혼자녀, 이혼 혹은 사별한 자녀와 비교하여 살펴보고(연구문제 1), 자녀의 혼인지위와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보았다(연구문제 2).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Models 1과 Models 2에서는 기혼 자녀를 준거집단으로 하여 혼인지위의 주효과(Models 1: 비혼 대 기혼, 이혼·사별 대 기혼)와 혼인지위와 성별의 상호작용효과(Models 2: 비혼×성별, 이혼·사별×성별)를 추정하였다. Models 3과 Models 4에서는 이혼하거나 사별한 자녀를 준거집단으로 하여 혼인지위의 주효과(Models 3: 비혼 대 이혼·사별, 기혼 대 이혼·사별)와 혼인지위와 성별의 상호작용효과(Models 4: 비혼×성별, 기혼×성별)를 추정하였다. Models 1-4에서는 아래에서 보다 자세히 설명할 고정효과 회귀모형을 사용하였으며 이 때 자녀의 혼인지위와 성별 외 자녀의 특성(연령, 교육수준 등)이 세대 간 접촉에 미치는 영향이 함께 추정되었다. Models 5에서는 robust standard error를 구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자녀의 특성 뿐 아니라 부모의 특성이 세대 간 접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령화연구패널조사에서는 부모들이 최대 10명의 자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모든 자녀의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원자료를 재배열하여 부모가 아닌 자녀가 분석의 단위가 되도록 한 후 분석을 실시하였다. 한 부모 아래 여러 명의 자녀가 분석에 고려되는 가족 내 분석(within-family analysis)을 실시하면 모든 자녀에게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가족의 특성(예를 들어 현재 부모의 건강상태, 과거 부모의 양육행동, 아동기 때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 부모로부터의 유전 등)이 통제될 필요가 있다. 고정효과모형은 가족의 특성을 효과적으로 통제한다는 강점이 있으나(P. Allison, 2002; T. Pudrovska, 2008)

가족의 특성(본 분석에서는 부모의 특성)의 효과는 추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Models 5에서 일반적인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부모의 특성이 세대 간 접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 때 robust standard errors를 구하였으며 그 이유는 한 부모 아래 자녀들이 초래하는 데이터 내 clustering으로 인해 표준오차가 과소추정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KLoSA(2006)는 결혼한 응답자의 배우자까지 설문대상에 포함시켰는데, 만남이나 연락과 같은 경우 이론상 남편(아버지)과 아내(어머니)가 자녀와 접촉하는 빈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데이터 상으로는 그러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동일한 자녀에 대한 동일한 정보가 두 번씩 분석에 고려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부부가 함께 참여한 경우 아내나 남편 한 명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IV. 연구 결과

1.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40세 이상의 성인자녀와 부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간략히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Table 1). 우선 두 세대 간 만남(대면접촉)의 빈도는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 번에서 두세 번 정도'에서 '일 년에 한 번에서 대여섯 번 정도'로, 연락의 빈도는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세 번 정도'에서 '한 달에 한 번에서 두세 번 정도'로 나타나 만남보다는 연락이 잦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자녀의 특성을 살펴보면, 자녀의 평균연령은 48세로 딸이 연구대상자의 53%를 차지하고 있었다. 비혼자녀는 연구대상자의 3%를 차지하고 있는데, 2010년 현재 우리나라의 생애미혼율(남성 5.8%, 여성 2.8%, S. H. Cho, 2014)과 비교하여 그 수치가 다소 낮은 것으로 보인다. 우선 부모와 동거하는 비혼자녀가 연구대상에서 제외된 점이 그 원인 중 하나이지만, 고령화연구패널의 표집틀이 자녀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부모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일 수도 있다.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40세 이상의 성인자녀와 그 부모의 접촉빈도가 자녀의 혼인지위와 성별에 따라 보다 상세히 구분된 결과가 <Table 2>에 제시되어 있다. 만남(대면접촉)의 결과를 보면 비혼의 딸과 기혼의 아들이 부모와의 접촉빈도가 가장 높으며, 혼인지위별로 그 빈도의 차이가 비교적 뚜렷하다는 특징이 나타난다. 즉 비혼의 딸, 기혼의 딸, 이혼이나 사별한 딸의 순으로 부모와 자주

만나며, 아들의 경우 기혼의 아들, 비혼의 아들, 이혼이나 사별한 아들의 순이 된다. 전화, 우편, 이메일 등을 통한 연락은 기혼의 딸과 기혼의 아들이 부모와 가장 자주 연락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기혼의 딸과 비혼의 딸은 부모와 연락을 교환하는 수준이 거의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들의 경우 역시 혼인지위별로 연락에 차이가 비교적 분명하여 기혼의 아들, 비혼의 아들, 이혼이나 사별한 아들 순으로 부모와 연락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 결과

<Table 3>은 자녀와 부모 사이의 만남(대면접촉)이 자녀의 혼인지위와 성별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보여준다. Models 1-2에서는 기혼자녀를 준거집단으로 하여 비혼자녀와 부모의 대면접촉의 빈도가 기혼자녀와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고정효과모형을 통해 살펴보았으며 분석결과 혼인지위의 주효과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b = .04, ns$). 한편, 성별의 주효과를 살펴보면 딸과 부모의 대면접촉의 빈도가 아들보다 낮은 것처럼 보이지만($b = -.07, p < .01$), 성별의 효과는 혼인지위에 따라 다르다는 점을 상호작용효과를 통해서(Model 2, Model 4) 알 수 있다. Model 2에서 유의하게 나타난 상호작용($b = .39, p < .01$)의 패턴을 <Figure 1>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면, 비혼이라는 자녀의 혼인지위와 부모와의 접촉빈도 간 관련성이 아들과 딸에게 다르게 나타남을 보여준다. 즉 비혼의 딸은 기혼의 딸보다 부모와 보다 자주 만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혼의 아들은 부모와의 접촉빈도가 기혼의 아들보다 약간 낮았으며 기혼의 딸과 유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으로 기혼자녀 대신 이혼하거나 사별한 자녀를 준거집단으로 하여 비혼자녀와 부모의 접촉빈도를 살펴보았다(Table 3, Models 3-5). Model 3의 결과에 따르면 준거집단을 바꾸어도 자녀의 혼인지위는 부모와의 접촉빈도에 주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자녀의 혼인지위와 성별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났으며(Model 4) 그 패턴은 앞서와 유사하였다($b = .51, p < .01, Figure 2$). 즉 비혼의 딸은 이혼이나 사별한 딸보다 부모와 보다 자주 만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비혼의 아들은 부모와의 접촉빈도가 이혼이나 사별한 아들보다 낮고 이혼이나 사별한 딸과 유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Figure 1>과 <Figure 2>를 비교하면 부모와 자녀의 특성을 광범위하게 통제한 상태에서 이혼이나 사별한 아들이 부모와의 접촉빈도에서 비혼의 딸 다음으로 높은 것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Analytic Variables

Variable	Mean	S.D.		Range	
<u>Dependent Variables</u>					
Face-to-face contact	1.44	0.85	0	-	4
Contact via phone, mail, email etc.	2.27	0.90	0	-	4
<u>Child Characteristics</u>					
Marital status					
Never married	0.03	0.16	0	-	1
Married	0.93	0.25	0	-	1
Divorced or widowed	0.04	0.19	0	-	1
Daughter (0=son)	0.53	0.50	0	-	1
Age (in 10 years)	4.80	0.64	4	-	7.9
Education	2.81	1.00	1	-	4
Home ownership (0=renter)	0.43	0.50	0	-	1
Work (0=not working)	0.57	0.50	0	-	1
Number of children	2.02	0.90	0	-	13
Residential Proximity	2.17	1.11	1	-	4
<u>Parent Characteristics</u>					
Age (in 10 years)	7.44	0.70	4.9	-	10.5
Mother (0=father)	0.76	0.42	0	-	1
Single (0=married)	0.55	0.50	0	-	1
Education	1.31	0.73	1	-	4
Household income (in 10,000 won/year)	1167.16	1684.30	0	-	33000
Home ownership (0=renter)	0.76	0.42	0	-	1
Work (0=not working)	0.12	0.32	0	-	1
Health status					
Depression (CES-D 10)	1.86	0.59	1	-	4
Functional impairment (IADL+ADL)	1.65	3.82	0	-	17
Cognitive functioning (MMSE-K)	1.92	0.83	1	-	3
Number of children	4.77	1.59	1	-	10
Having only son(s)	0.08	0.27	0	-	1
Having both son(s) and daughter(s)	0.89	0.32	0	-	1
Having only daughter(s), no son	0.03	0.18	0	-	1
Coresidence with at least one child	0.59	0.49	0	-	1
Area of Residence					
Metropolitan city	0.38	0.49	0	-	1
Medium to large-sized city	0.29	0.45	0	-	1
Rural	0.33	0.47	0	-	1

Note: Data were drawn from first wave of the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KLoSA, 2006). Respondents consisted of parents (N = 2,755) and their non-coresident children aged 40+ (N = 7,741). Means for dichotomous variables are proportions.

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Table 2>에서 제시된 기술통계치와 차이가 있다¹²⁾.

Model 5에서는 앞서의 모델과 달리 고정효과모형(가족 내 분석)에서 추정되지 않는 부모특성 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제시한다. 우선 자녀의 특성을 살펴보면 자녀가 (전세나 월세에 사는 경우와 비교하여) 자가소유자일 때 또 부모와 근접하여 살수록 만남의 빈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자녀의 교육수준은 회귀분석에서는 유의하지만 고정효과모형에서는 그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녀의 교육수준은 한 가족 내 부모와 자녀 사이의 접촉빈도를 예측하는 변인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부모의 특성을 살펴보면 부모의 연령이 낮을수록, 여성(어머니)이 남성(아버지)보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가 소유자일 때, 우울감이 낮을수록 자녀와 부모의 만남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는 전화, 우편, 이메일 등을 통한 자녀와 부모 사이의 연락이 자녀의 혼인지위와 성별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보여준다. Models 1-2에서는 기혼자녀를 준거집단으로 하여 비혼자녀와 부모와의 연락빈도가 기혼자녀와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고정효과모형을 통해 살펴보았으며 대면접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혼인지위의 주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혼인지위를 통제된 상태에서 딸과 부모와의 대면접촉의 빈도가 아들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b = .10, p < .001$). Model 2의 결과를 보면 자녀의 혼인지위와 성별에 유의한 상호작용효

과가 없음을 알 수 있다. Model 3에서는 준거집단을 바꾸어 세대 간 연락의 빈도에서 비혼자녀와 이혼 혹은 사별한 자녀와의 차이를 살펴보았으나 역시 자녀 혼인지위의 주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자녀의 혼인지위와 성별 사이에 유의한 상호작용효과도 나타나지 않았다 (Model 4)¹³⁾.

Model 5는 회귀분석의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만남(대면 접촉)에서와(Table 3) 동일한 자녀의 특성이 부모와의 연락빈도와 유의한 관련이 있었다. 즉 자녀가 (전세나 월세에 사는 경우와 비교하여) 자가소유자일 때 또 부모와 근접하여 살수록 연락의 빈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자녀의 교육수준과 근로여부는 고정효과모형에서 유의하지 않아 회귀분석의 결과에 의미를 두지 않는다. 한편, 대면 접촉의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Table 3) 보다 다양한 부모의 특성이 연락과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부모의 연령, 성별, 교육수준, 자가유무, 우울감 외 부모의 자녀수(자녀의 입장에서는 형제자매의 수)가 적을수록, 아들만 있는 경우와 비교하여 딸이 있을 때, 동거하는 자녀가 한 명도 없을 때, (시골과 비교하여) 대도시에 거주할 때 자녀와 부모의 연락빈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 of Intergenerational Contact Frequency by Children's Marital Status and Gender

	Face-to-face contact		Contact via phone, mail, email etc.	
	Daughters	Sons	Daughters	Sons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Never married	1.64 (1.16)	1.30 (1.12)	2.28 (1.06)	1.90 (1.26)
	$n = 69$	$n = 142$	$n = 69$	$n = 142$
Married	1.38 (0.79)	1.53 (0.86)	2.31 (0.85)	2.27 (0.88)
	$n = 3,827$	$n = 3,406$	$n = 3,827$	$n = 3,406$
Divorced or widowed	1.31 (1.00)	1.19 (1.12)	2.09 (1.12)	1.60 (1.21)
	$n = 171$	$n = 126$	$n = 171$	$n = 126$

Note: Data were drawn from first wave of the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KLoSA, 2006). Respondents consisted of parents ($N = 2,755$) and their non-coresident children aged 40+ ($N = 7,741$).

12) 기술통계분석에서는 기혼의 아들과 부모와의 접촉빈도가 가장 높았고 이혼이나 사별한 아들과의 접촉빈도가 가장 낮았다.

13) 상호작용효과는 trend level에서 나타났으며($b=.28, p < .06$) 그 결과는 대면접촉과 일관된 패턴을 보였다. 즉 비혼의 딸이 기혼의 딸보다 부모와의 연락빈도가 높았던 반면 비혼의 아들은 기혼의 아들보다 연락빈도가 약간 낮았다.

Table 3. Parameter Estimates of Face-to-Face Contact between Midlife or Older Children and Their Parents

	Model 1 ^a	Model 2 ^a	Model 3 ^a	Model 4 ^a	Model 5 ^b
	b	b	b	b	b
<u>Variables of Key Interest</u>					
Child never married	0.04	-0.10	-0.03	-0.23 [*]	0.07
Child divorced or widowed	0.07	0.14			
Child married			-0.07	-0.14	0.06
Child gender (1=daughter, 0=son)	-0.07 ^{**}	-0.08 ^{**}	-0.07 ^{**}	-0.20	-0.05 [*]
Child never married × Child gender		0.39 ^{**}		0.51 ^{**}	
Child divorced or widowed × Child gender		-0.12			
Child married × Child gender				0.12	
<u>Covariates: Child Characteristics</u>					
Age (in 10 years)	-0.00	-0.00	-0.00	-0.00	-0.01
Education	0.01	0.01	0.01	0.01	0.04 ^{***}
Home ownership (0=renter)	0.07 ^{**}	0.07 ^{**}	0.07 ^{**}	0.07 ^{**}	0.04 [*]
Work (0=not working)	0.01	0.01	0.01	0.01	-0.00
Number of children	0.01	0.01	0.01	0.01	0.01
Residential proximity	0.46 ^{***}	0.46 ^{***}	0.46 ^{***}	0.46 ^{***}	0.45 ^{***}
<u>Covariates: Parent Characteristics</u>					
Age (in 10 years)					-0.05 ^{**}
Mother (0=father)					0.05 [*]
Single (0=married)					-0.02
Education					0.04 ^{**}
Household income					0.01
Home ownership (0=renter)					0.11 ^{***}
Work (0=not working)					-0.02
Health status					
Depression (CES-D 10)					-0.05 ^{***}
Functional impairment (IADL+ADL)					0.00
Cognitive functioning (MMSE)					-0.02
Number of children					-0.01
Having both son(s) and daughter(s) (0=having only son(s))					-0.02
Having only daughter(s), no son (0=having only son(s))					0.06
Coresidence with at least one child					-0.03
Area of Residence					
Metropolitan city (0=rural)					0.00
Medium to large-sized city (0=rural)					-0.01
Constant	0.40 ^{***}	0.43 ^{***}	0.47 ^{***}	0.57 ^{***}	0.74 ^{***}

Note: Data were drawn from first wave of the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KLoSA, 2006). Respondents consisted of parents (N = 2,755) and their non-coresident children aged 40+ (N = 7,741).

^aFixed effects (or sibling fixed effects) regression models

^bRegression model with robust standard errors

*p < .05, **p < .01, ***p < .001

Table 4. Parameter Estimates of Contact via Phone, Mail, Email etc. between Midlife or Older Children and Their Parents

	Model 1 ^a	Model 2 ^a	Model 3 ^a	Model 4 ^a	Model 5 ^b
	b	b	b	b	b
<u>Variables of Key Interest</u>					
Child never married	-0.14	-0.24*	-0.11	-0.22	0.03
Child divorced or widowed	-0.03	-0.02			
Child married			0.03	0.02	0.20***
Child gender (1=daughter, 0=son)	0.10***	0.09***	0.10***	0.07	0.21***
Child never married × Child gender		0.28		0.30	
Child divorced or widowed × Child gender		-0.02			
Child married × Child gender				0.02	
<u>Covariates: Child Characteristics</u>					
Age (in 10 years)	-0.03	-0.03	-0.03	-0.03	-0.04
Education	0.03	0.03	0.03	0.03	0.11***
Home ownership (0=renter)	0.10***	0.10***	0.10***	0.10***	0.10***
Work (0=not working)	0.02	0.02	0.02	0.02	0.08***
Number of children	0.01	0.01	0.01	0.01	0.01
Residential proximity	0.24***	0.24***	0.24***	0.24***	0.26***
<u>Covariates: Parent Characteristics</u>					
Age (in 10 years)					-0.08***
Mother (0=father)					0.07*
Single (0=married)					-0.03
Education					0.05***
Household income					0.01
Home ownership (0=renter)					0.11***
Work (0=not working)					-0.03
Health status					
Depression (CES-D 10)					-0.15***
Functional impairment (IADL+ADL)					0.00
Cognitive functioning (MMSE)					0.02
Number of children					-0.01*
Having both son(s) and daughter(s) (0=having only son(s))					0.09*
Having only daughter(s), no son (0=having only son(s))					0.25***
Coresidence with at least one child					-0.07**
Area of Residence					
Metropolitan city (0=rural)					0.07**
Medium to large-sized city (0=rural)					0.03
Constant	1.70***	1.72***	1.67***	1.71***	1.97***

Note: Data were drawn from first wave of the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KLoSA, 2006). Respondents consisted of parents (N = 2,755) and their non-coresident children aged 40+ (N = 7,741).

^aFixed effects (or sibling fixed effects) regression models

^bRegression model with robust standard errors

*p < .05, **p < .01,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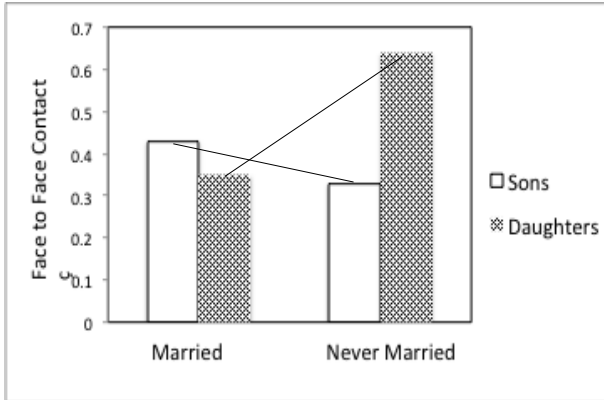


Figure 1. Frequency of Face-to-Face Contact, by Marital Status (Married vs. Never Married) and Gender of Childr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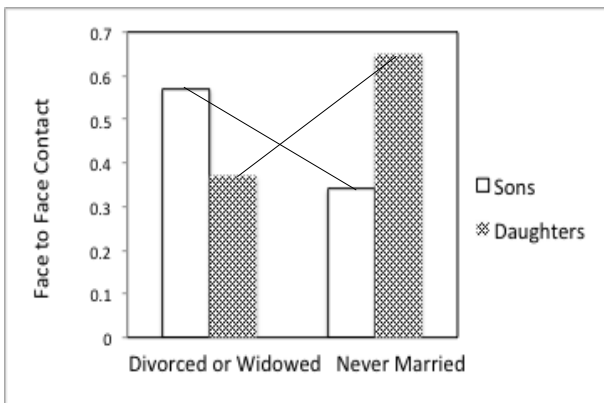


Figure 2. Frequency of Face-to-Face Contact, by Marital Status (Divorced or Widowed vs. Never Married) and Gender of Children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부모 세대의 노년기가 확대되는 가운데 자녀 세대의 비혼이 증가하는 경향에 주목하여 한국가족에서 비혼자녀와 부모의 결속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가를 살펴보았다. 비혼자의 증가는 비교적 최근의 현상으로 가족의 쇠퇴 혹은 해체의 징후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으나, 고령화와 비혼이 함께 진행되어 온 일본의 경우 비혼자녀가 부모를 돌보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E. Jee, 2014)¹⁴. 이처럼 가족의 돌봄과 부양의 기능이 역설적으로 비혼자녀에 의해 유지될 가능성이 있으나, 한국가족에서 비혼자녀와 그 부모의 결속

에 대한 연구가 아직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세대 간 결속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인 일상적인 접촉의 빈도를 결혼경험이 없고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¹⁵ 40세 이상의 비혼자녀에 초점을 두어 살펴보았다.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같다. 첫째, 부모와의 대면접촉에서 자녀의 혼인상태와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나,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자녀들 사이에서는 비혼의 딸이 기혼이나 이혼 혹은 사별한 딸과 비교하여 부모와의 만남(대면접촉)이 보다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혼의 아들은 기혼의 아들보다 유사하지만 약간 낮은 빈도로 부모와 만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혼 혹은 사별을 한 아들보다 그 빈도가 유의하게 낮았다. 둘째, 부모와의 연락에서는 자녀의 혼인지위와 성별의 상호작용이 나타나지 않았다. 자녀의 혼인지위는 부모와의 연락빈도와 관련성이 없었으며, 혼인지위가 통제된 상태에서 딸과 부모 사이의 연락빈도가 아들과 부모 사이의 연락빈도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부모와 자녀의 특성이 광범위하게 통제된 상태에서 비혼의 딸과 부모가 서로와의 만남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원가족 안에 비혼의 딸이 있다면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자녀 중에서는 비혼의 딸이 'kin keeper(C. J. Rosenthal, 1985)'의 역할을 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은 본 연구가 한 부모 아래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모든 자녀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아 가족 내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에서 부모와 동거하는 자녀의 유무를 통제하여 얻은 신뢰할 수 있는 결과이다. 현재 65세 이상 부모 세 명 중 두 명이 동거하는 자녀가 없다는 통계치에 비추어 보아도(S. S. Lee, H. J. Choi, & H. S. Yoon, 2015) 이 결과의 중요성을 짐작할 수 있다.

비혼의 아들은 기혼의 딸 및 이혼이나 사별한 딸과 유사한 빈도로 부모와 만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ure 1, Figure 2). 이 연구결과는 기존의 선행연구가 주로 비혼의 딸에 국한되었다는 점에서 또 아들의 경우 특히 부모와 접촉하는 빈도가 세대 간 지지교환을 예측한다는 선행연구(L. Lawton et al., 1994; M. Silverstein et al., 1995)의 결과에 비추어 비혼의 아들에 대해 새로운 정보를 제공한다는 의의가 있다. 국내에서 이루어진 소수의 질적연구는 비혼의 아들과 부모의 관계를 딸과 비교하여 정서적 친밀감이 상대적으로 결여되어 있으며, 비혼의 아들이 부모로부터 도구적지지를 받는 관계로 묘사하였는데

14)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7/14/0200000000AKR20150714139400005.HTML?input=1195m>

15) 고령화연구패널에서는 동거하는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와의 접촉빈도를 조사하지 않았다.

(H. -K. Kim, 2013) 연구결과 부모와 자녀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이 통제된 상태에서 비혼의 아들은 딸과 유사한 빈도로 부모와 만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의 도구적 지지가 대면접촉을 통해 이루어 질 수밖에 없다는 측면을 감안할 때 부모와의 대면접촉 빈도에서 비혼의 아들과 딸 사이에 차이가 없었다는 연구결과는 비혼의 아들과 부모와의 관계가 선행연구가 시사하는 바와 다를 가능성을 제기한다. 비혼의 아들에 대한 연구결과가 질적연구와 다른 양상을 보인 까닭은 질적연구가 아들의 혼인지위(비혼)와 사회경제적 지위의 독립적인 영향력을 구분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보아야 한다.

비혼의 아들과 동일하게 배우자가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혼이나 사별한 아들과 부모의 만남이 가장 빈번하다는 다변량분석의 결과는(Table 3) 이혼이나 사별과 같은 스트레스 상황이 세대관계에 긴장을 초래하여 그 결과 관계가 소원해진다는 해외 선행연구의 결과와 대비된다(M. Kalmijn, 2014). 연구결과는 아들이 경험하는 이혼이나 사별이라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부모라는 지지체계가 활성화되면서 그 결과 두 세대 간 만남이 빈번해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M. Kalmijn, 2014). 자녀와 부모 세대의 도구적 지지 교환은 가사도움이나 손자녀 양육을 매개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¹⁶⁾ 독립된 주거를 형성하고 있는 이혼이나 사별한 아들은 부모의 가사 및 양육지원이 절실한 반면, 비혼의 아들은 상대적으로 도구적 지지의 필요 수준이 낮은 집단일 수 있다. 이혼한 아들이 이혼한 딸보다 부모로부터 도구적 지지를 더 많이 받는다는 선행연구(H.-J. Park, & G.-H. Han, 2006)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배우자와 이혼한 자녀와 사별한 자녀를 구분하지 않고 한 집단으로 분석에서 고려하였는데, 배우자와의 이혼이 부모와의 접촉빈도에 미치는 영향과 배우자와의 사별이 부모와의 접촉빈도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사별한 자녀를 제외하고 추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유사한 패턴의 결과가 발견되었다. 이는 자녀의 평균연령(48세)을 감안할 때 시기상 배우자와의 사별이 이혼과 같이 off-time event라는 점에서 부모-자녀관계에 유사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령화연구패널은 부모와 동거(coresidence)하지 않는 자녀만을 대상으로 세대 간 접촉의 빈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부모와 동거하는 자녀의 유무가 분석에서 통제되었을 뿐 동거하는 자녀가 연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세대 간 결속에서 비혼자녀의 역할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서 후속연구는 부모와 동거하는 비혼자녀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둘째, 비혼, 이혼, 사별한 자녀의 동거(cohabitation) 여부를 통제할 수 없었다. 현재 동거에 대한 국가통계가 부재하나 2002년에 성인남성 2,000명(20-69세)을 대상으로 실시된 조사에서 40대의 25%, 50대의 8%가 동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S.-M. Kang, 2015). 동거를 하는 비혼, 이혼, 사별한 자녀는 기혼자녀와 유사한 패턴의 세대관계를 보일 가능성이 있어 후속연구에서는 동거여부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의 한계로 세대 간 정서적·도구적 지지를 접촉의 빈도와 함께 감안하지 못하였으나 후속 연구에서는 기능적·교류적 결속을 함께 살펴 세대 간 결속을 보다 다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부모가 자녀와의 접촉에 대해 제공한 자료를 분석하였는데 부모는 전반적으로 자녀보다 세대 간 결속에 대해 보다 긍정적으로 보고하는 경향이 있어(R. Ward et al., 2014), 후속연구에서는 자녀를 대상으로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여 유사한 패턴의 결과가 나타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REFERENCES

- Allison, P. (2002). *Fixed effects regression models*. Thousand Oaks, CA: Sage.
- Bengtson, V. L. (2001). Beyond the nuclear family: The increasing importance of multigenerational bond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3(1), 1 - 16.
- Bucx, F., Van Wel, F., Knijn, T., & Hagendoorn, L. (2008). Intergenerational contact and the life course status of young adult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0(1), 144-156.
- Chae, J. H. (2015). Phenomenological study on middle-aged single women's life: Focusing on outlook on marriage. *Korean Journal of Interdisciplinary Therapy*, 6(2), 5-28.
- Cho, B. E. (1990). Intergenerational family solidarity and life satisfaction among Korean aged parents.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10,

16) 본 연구에서 자녀의 자녀수는 통제되었으나(조부모의 입장에서는 손자녀의 수) 이들 중 조부모의 도움을 집중적으로 필요로 하는 미취학 자녀수에 대한 정보는 2006년 고령화연구패널자료에서 제공되지 않아 분석에 고려될 수 없었다.

- 105-124.
- Cho, S. H. (2014). *Attitude to marriage and child rearing in Japan and Korea unmarried population(2014-46)*. Sejong-si, Korea: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Choi, J. H. (1994). Research on adult children's perception of solidarity and discord with their aged parents.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14(2), 25-36.
- Coser, L., & Coser, R. L. (1974). The housewife and her greedy family. *Greedy institutions: Patterns of undivided commitment* (pp. 89-166). New York: Free Press.
- Folstein, M. F., Folstein, S. E., & McHugh, P. R. (1975). Mini-mental state: A practical method for grading the cognitive state of patients for the clinician. *Journal of Psychiatric Research*, 12(3), 189 - 198.
- Grundy, E., & Read, S. (2012). Social contacts and receipt of help among older people in England: Are there benefits of having more children? *Th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67(6), 742-754.
- Grundy, E., & Shelton, N. (2001). Contact between adult children and their parents in Great Britain 1986 - 99. *Environment and Planning A*, 33(4), 685-697.
- Hank, K. (2007). Proximity and contacts between older parents and their children: A European comparison.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9(1), 157-173.
- Jang, H. K., Kim, I. S., Kim, T. H., Kim, H. K., Byun, H. S., Son, S. Y., Eun, G. S., Lee, M. J., Lee, J. S., Jang, G. S., Jang, J. H., Jung, J. J., Han, G. H., Kim, Y. R., & Na, S. E. (2003). *Korean family report: A national study* (2003 Research Paper-24). Seoul, Korea: Ministry of the Gender Equality & Family.
- Jee, E. (2014). Masculinities of un-married sons as family caregivers: Changing family dynamics and gender order in Japan. *Journal of Korean Women's Studies*, 30(4), 77-117.
- Kalmijn, M. (2014). Children's divorce and parent - child contact: A within-family analysis of older European parents. *Th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71(2), 332-343.
- Kalmijn, M., & De Vries, J. (2009). Change and stability in parent - child contact in five Western countries. *European Journal of Population/Revue europeenne de demographie*, 25(3), 257-276.
- Kang, J. H., & Seol, Y. W. (2012). A qualitative study of unmarried middle-aged women's perceptions and preparation efforts for successful aging.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17(2), 127-151.
- Kang, S. K., Choi, H. J., & Chung, M. R. (2016). The effect of grandmothers' solidarity with adult children, intimacy with grandchildren, and gate-keeping on role satisfaction. *Korean Journal of Child Education and Care*, 16(1), 141-161.
- Kang, S.-M. (2015). A study on de facto marriage and cohabitation - Focused on the liquidation of the death of de facto marriage spouse and cohabitation annulment. *Han Yang Law Review*, 26(3), 3-31.
- Keith, P. (2003). Resources, family ties, and well-being of never-married men and wome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ork*, 42(2), 51-75.
- Kim, H.-K. (2013). Failure of the patrilineal stem family system?: Familialism and individualization among the generation of economic crisis of Korea in 1998. *Korean Journal of Sociology*, 47(2), 101-141.
- Kim, H. Y. (2007). Reasons for staying single and familism: Single-person households. *Sociological Conference for the Korean Sociological Association collected papers*, 1041-1057.
- Kim, H. Y., Sun, B. Y., Chin, M. J., & Shagong, E. H. (2007). *Survey on single-person households: Familism and Living Conditions* (2007 Research Paper-10). Seoul, Korea: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Kwon, M. H., Kim, B. H., & Kim, Y. J. (2009). Subjectivity about satisfaction of life in middle-aged single women. *Journal of KSSSS*, 18, 101-123.
- Lawton, L., Silverstein, M., & Bengtson, V. L. (1994). Affection, social contact, and geographic distance between adult children and their parent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6(1), 57-68.
- Lee, C. (2012). Sociodemographic factors in non-marriages in Korea. *Journal of Social Science*, 38(3), 49-71.
- Lee, J.-H., & Choi, Y.-S. (2007). The effects of family system on psychological independence from parents among unmarried women.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4(4), 75-92.

- Lee, J. H., & Kim, H. J. (2015). A study on a process of maintaining never married status of never-married men in their 40's using grounded theory. *Korean Association Of Family Relations*, 20(2), 101-134.
- Lee, J.-Y., & Chung, H.-J. (2003). The relationships of adult children's caregiving burden and inter-generational solidarity with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1(6), 1-13.
- Lee, S. S., Choi, H. J., & Yoon, H. S. (2015). *Change in marriage and fertility behaviors and policy implications*. Sejong-si, Korea: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Lee, S. Y. (2012). The change of marital status in Korea: 1995-2010. *Family and Culture*, 24(3), 34-64.
- Lee, S. Y. (2013). An analysis of differential non-marriage and divorce proportions by educational level in Korea: 1995-2010.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36(4), 1-24.
- Noh, M.-W., & Lee, I. (2011). Family Experiences of Never-Married Women. *Korean Journal of Family Therapy*, 19(1), 77-101.
- Park, H.-J., & Han, G.-H. (2006). Support from the elderly parents and the post-divorce adjustment of adult children.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26(2), 361-380.
- Pudrovska, T. (2008). Psychological implications of motherhood and fatherhood in midlife: Evidence from sibling model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0(1), 168-181.
- Radloff, L. S. (1977).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3), 385-401.
- Riley, M. W. (1983). The family in an aging society a Matrix of latent relationships. *Journal of Family Issues*, 4(3), 439-454.
- Rosenthal, C. J. (1985). Kinkeeping in the familial division of labor.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7(4), 965-974.
- Sarkisian, N., & Gerstel, N. (2008). Till marriage do us part: Adult children's relationships with their parent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0(2), 360-376.
- Seltzer, J. A., Yahirun, J. J., & Bianchi, S. M. (2013). Coresidence and geographic proximity of mothers and adult children in stepfamili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5(5), 1164-1180.
- Shim, K. (2002). *A study on Korean unmarried 'bihon' women-Concerning socio-cultural factors which influence unmarried women in their mid-thirty to late forty* -.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Silverstein, M., & Bengtson, V. L. (1997). Intergenerational solidarity and the structure of adult child parent Relationships in American famili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3(2), 429-60.
- Silverstein, M., Gans, D., & Yang, F. M. (2006). Intergenerational support to aging parents the role of norms and needs. *Journal of Family Issues*, 27(8), 1068-1084.
- Silverstein, M., Parrott, T. M., & Bengtson, V. L. (1995). Factors that predispose middle-aged sons and daughters to provide social support to older parent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7(2), 465-475.
- Spitze, G., Logan, J. R., Deanne, G., & Zerger, S. (1994). Adult children's divorce and intergenerational relation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6(2), 279 - 293.
- Statistics Korea. (2010). Household Projections for Korea: 2010~2035. Deajeon, Korea: Statistics Korea.
- Steinbach, A. (2013). Family structure and parent - child contact: A comparison of native and migrant famili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5(5), 1114-1129.
- Sung, M. (2013, Nov). Deconstruction and reconstruction of discourse on midlife unmarried women's perspectives on marriage and family. *2013 Proceedings of the KHMA Conference*, 171-184.
- Sung, M. (2014). Marriage and family discourse of ever-single women in their 40s and 50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32(2), 131-141.
- Szinovacz, M. E., & Davey, A. (2001). Retirement effects on parent - adult child contacts. *The Gerontologist*, 41(2), 191-200.
- Tomassini, C., Kalogirou, S., Grundy, E., Fokkema, T., Martikainen, P., Van Groenou, M. B., & Karisto, A. (2004). Contacts between elderly parents and their children in four European countries: Current patterns and future prospects. *European Journal of*

Ageing, 1(1), 54-63.

- Tombaugh, T. N., & McIntyre, N. J. (1992). The 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A comprehensive review. *Journal of the American Geriatrics Society*, 40(9), 922-935.
- Treas, J., & Gubernskaya, Z. (2012). Farewell to moms? Maternal contact for seven countries in 1986 and 2001.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4(2), 297-311.
- Ward, R., Deane, G., & Spitze, G. (2014). Life-course changes and parent-adult child contact. *Research on Aging*, 36(5), 568-602.
- Won, C. W., Yang, K. Y., Rho, Y. G., Kim, S. Y., Lee, E. J., Yoon, J. L., Cho, K. H., Shin, H. C., Cho, B. R., Oh, J. R., Yoon, D. K., Lee, H. S., Lee, Y. S. (2002). The development of Korean activities of daily living (K-ADL) and Korean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K-IADL) scale. *Journal of the Korean Geriatrics Society*, 6(2), 107-120.
- Yang, E. J. (2005). *The study of life and career development of the highly educated never-married career wom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Received: August 15. 2016
- Revised: September 23. 2016
- Accepted: October 23. 2016